

이원욱-김종민 “민주당 시간” 12월말까지…원칙과 상식을

5·18 참배 후 기자간담회 “도덕성, 당내 민주화, 비전정치” 강조 “당내 변화와 혁신에 의원 40~50명, 광주·전남 절반 정도 공감” ‘공천 노린 집단행동’ 의견엔 “가짜뉴스”…조국엔 “힘저 택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을 이끌고 있는 이원욱·김종민 의원이 22일 “당 안팎의 독선과 독주를 멈춰세우고, 위기의 대한민국과 당을 구하기 위해 민주당에 주어진 시간은 12월 말까지로 (여유 부림)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내 변화와 혁신에 40~50명의 의원이 공감하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현역 의원) 절반 정도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도덕성과 당내 민주화, 비전정치에 기반한 원칙과 상식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원칙과 상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5·18 묘지 방문목에는 ‘다시 광주에서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김 의원은 “정부의 독주와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민심 이반이 ‘민심 연대’로 이어지고 있고, 당내에선 ‘반당·팬덤 정치’와 친명계

독주라는 비판이 여전하다”며 “변화와 개선없이 이대로 간다면 총선에서 무승부나 심지어 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12월 말 안에는 당 내부 정비와 개혁작업을 마쳐 압도적 승리로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2일 예산국회가 끝나고, 12월20일까지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 각 정당마다 선거대책위, 공천심사위를 꾸리는 등 선거정국으로 빨려들어가 국회라는 공간이 없어지는 만큼 연내 “밀린 방학숙제 하듯” 서둘러 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코인 사건과 현수막 논란 등을 예로 들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 게 상식과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도덕성과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묻는 질문에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 맙시다” “안하겠다”는 말 정도는 하는 도덕성과 다른 목소리도 포용할 줄 아는 당내 민주화, 투

쟁정치에 비해 소홀하다는 비전정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같은 3대 원칙과 상식에 당내 40~50명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절반 정도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방식, 즉 모임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는 데는 이견이 있어, 실제 동참자는 많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천을 노린 집단행동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 “심각한 모독”이라고 못박았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신당 창당 후 광주출마설에 대해선 사건을 전제로 “(나 같으면) 고향 부산으로 갈 것 같다. 민주당 성지로 갈 것이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민주당 힘저로 갈 것이냐의 문제로, 떨어뜨려도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은 5·18 참배 후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시장과 만나 메가시티, 달빛내륙철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광주와 전남, 전북



5·18 묘지 참배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이원욱 의원.

을 호남 단일경제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 재정·입법권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두 의원 모두 이에 공감했다.

또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10년, 20년 이대로 가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희면기자

김기현 “민주 ‘막말’ 최강욱만 문제 아냐”

“민주당 지도부도 막말 릴레이 이어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을 징계한 데 대해 “최 전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

거 8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동안 지도부도 막말 릴레이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과도한 막말 대행진을 벌이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상식이 있는 정당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김 전 대통령 추모사에서 언급한 ‘민주화 참정 세력’에 대해 “어떠한 의미인지는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잘 알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앞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민주화 참정 세력이 특세하는 오늘날 진정한 민주화의 지도자인 김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리워지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유나기자

민주 여성위 “최강욱, 당원 정지 6개월 당연…사과 요구”

민주 여성위 “최강욱 ‘설치는 암컷’ 발언, 여성 비하 내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22일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을 두고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당의 6개월 당원권 징계는 당연하며, 이에 더해 최 전 의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

해 “최 전 의원의 비판이 누구를 향하건 간에,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가 내포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전국여성위는 “우리 당은 당내 젠더 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당보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여전

히 부족하며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당의 시스템적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구축하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 그 자체가 가부장제 문화가 만든 언어폭력이며, 여성의 사회·정치적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인식과 남성중심적 정치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여성 정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처럼 일상화된 구조적 차별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성별에 차별 받지 않는 실질적 성평등 정당을 만드는 데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